

#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 대법과 별개로 처리 ‘속도’

민주, 22~24일 본회의 소집…추천위원 9명 전원 법관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에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추천위 구성원에 (각급)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거론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이번에 추천위를 구성할 때 과반이 되지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추천위원이 될 수 있도록 성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수정안은) 성안 중으로, 총 추천위원 9인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천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소속은 3~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래는 아무리 빨라도 갈래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외 국외·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에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의혹에 연루된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해선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송연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게이트의 화살이 이재명 정권을 향하자 정권의 충견인 민중기 특검이 야당 핵심 인사를 표적으로 공개적 이벤트 수사를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청래 대표 만난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오른쪽)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는 광주, 김민석은 전남…주말 호남 달군다

정 대표, 오늘 전남대 특강…김 총리 내일 도청서 국정 설명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주말 잇따라 광주와 전남을 찾는다.

표면적으로는 당원 교육과 국정 설명회 형식이지만, 정가에서는 차기 당권과 대권 가도를 위한 ‘호남 구애전’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19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당원 대상 특강을 진행한다.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이 무산돼 리더십에 생채기가 난 정 대표로서는 텃밭 당원들의 결속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가 지난 10일 광주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역 예산 성과를 과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다시 광주행 열차에 몸을 실은 이유다.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밀집한 호남에서부터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고 ‘정청래 대세론’을 재확인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문도 예사롭지 않다.

김 총리는 정 대표 방문 하루 뒤인 20일 오후 3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K-국정설명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서 국정 성과를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행정가 김민석’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 총리 역시 지난달 26일과 지난 4일 광주를 찾

아 민심을 훑은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의 당 장악력이 주춤하는 틈을 타 김 총리가 국정 운영 능력을 무기로 ‘대안 리더’ 이미지를 굳히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내년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8월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두 사람의 방문은 단순한 일정을 넘어선다.

광주 권리당원 수만 14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호남의 선택은 곧 당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권리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호남은 사실상 차기 당권의 전략지역”이라며 “예산권을 전 당 대표와 행정 집행권을 가진 총리가 호남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역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민주 최고위 보궐선거 레이스 시작

23일 1차 합동연설회…다음달 9~11일 투표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보궐선거 레이스가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 대표 측 인사 2명과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전명’ (진짜 이재명) 계로 부르는 후보 3명 간의 이번 대결은 이른바 ‘1인1표제’ 좌초로 타격을 받은 정 대표의 리더십 문제와 맞물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보선에는 친청계인 문정복·이성운 의원과 비당권파인 이견대·강득구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5명이 뛰고 있다.

전날 후보등록 마감 뒤 캠페인 첫날을 맞은 이날 후보들은 당원들과의 접촉면 확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후보들은 23일 중앙당 당사에서 열리는 1차 합동연설회에서 처음으로 맞붙는다. 이어 30일, 내년 1월 5일과 7일 세 차례의 합동 토론회를 거쳐 9~11일 투표를 통해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이번 선거의 변수로는 일단 2인 연기명 방식의

투표가 꼽힌다. 이는 유권자가 1표를 행사하되 지지하는 후보 2명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 사실상 1인2표제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 측에서 임오경 의원까지 애초 3명의 이름이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2명만 나온 것도 이런 투표 방식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비당권파의 경우 3명이라는 점에서 유권자가 1인2표를 어떻게 행사할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50% 투표를 합산하는 경선 방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의원,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은 이른바 조직표로 분류되는데, 정 대표는 그동안 조직표에서는 약세를 보여왔다. 가장 최근에는 자신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인1표제가 중앙위원 대상 투표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 4개 상임위 합동 ‘쿠팡 청문회’ 재추진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의 잇따른 국회 불출석으로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신 청문회를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국정조사 준비 기

간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청문회 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연석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위, 정무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심야 노동 강도, 산업재

해, 퇴직금 미지급 등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원천부터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여당의 협조 여부다. 김 대변인은 국민회의가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등의 참여와 관련, 해, 여당 역시 쿠팡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김 의장 고발 의결 등 청문회 개최에 협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